

# 仏教建築計劃에 關한 研究

金正秀

## 第1節 韓國仏教宗派의 現況과 分類

### 가. 宗派別 建築의 分類

8·15 解放과 더불어 信仰의 自由가 許容되는 大韓民國憲法規定에 따라 韓國에는 國內·國외의 各種 宗教教派가 생겼으니 仏教도 또한 새로운 宗派가 多數 發生하게 되었으며 특히 5·16以後 急速한 增加를 보이고 있다.

#### (1) 宗教上 分類

이들 宗派는 크게 나누어 傳統仏教系와 新興 仏教系로 区分할 수 있으니 傳統仏教系는, 仏教導入以後 今까지 16世紀의 期間에 걸쳐 韓國仏教의 法統을 이어온 教派를 말하며 現在의 比丘側의 曹溪宗과 帶妻側의 太古宗을 말한다.

그에 反하여 新興仏教系는 大部分 解放을 前後하여 發生 또는 登錄한 教派를 말하며 現在 20余 宗派에 達하고 大體로 淨土信仰系, 元曉思想系, 密教系, 法華信仰系, 其他 등으로 分類하고 있으니<sup>47)</sup> 이를 그림으로 表示하면 第1表와 같다. 新興仏教系中에도 元曉思想系는 大體로 傳統仏教系에 가깝다고 할 수 있으며 仏寺도 相當히 오랜 歷史를 지닌 경우가 많다.

新興仏教中에는 日本 日蓮宗系에 屬하는 宗派가 많으니 韓國仏教 法華宗, 大韓仏教 法華宗·仏入宗, 靈山 法華宗 등이 이에 屬한다.<sup>48)</sup>

#### (2) 建築上 分類

다음 分類方式은 第3章 以下의 調査에 對한 結論의 一部라 할 수 있다.

各種 教派를 建築形式上으로 分類하면 多仏殿型과 單仏殿型으로 區別할 수 있으며 多仏殿型은 傳統仏教系인 曹溪宗, 太古宗과 元曉思想系의 大韓仏教 元曉宗, 大韓仏教 華嚴宗, 大韓仏教 總和會 등이 이에 屬하며, 單仏殿型은 이를 仏壇에 仏像을 모시는 有仏殿과 仏壇에 仏像이 全혀 없는 無仏型으로 区分할 수 있다고 본다.

47) 週間宗教社, 韓國宗教總鑑(서울, 성화사 1973)p78.

48) 李喜秀, 韓國佛教(서울, 佛教普及所 1971)p204

前記 單仏殿 有仏型의 宗派에 있어서는 대개 仏殿内部에 安置된 仏像의 數는 宗派에 따라 一仏 內至 五仏을 前面 仏壇에 安置하며 其中 大韓仏教 法華宗·一乘宗은 釋迦 單仏을 安置하였고 韓國仏教 法華宗은 2仏, 大韓仏教 仏入宗은 5仏을 各各 安置한다.

但, 真言宗은 大日如來單仏을 安置하며 天華 仏教에서 는 仏像은 單仏 藥師仏이고 기타는 仏幀曼陀羅이다. (曼陀羅壇 密教系에서 大日如來를 中心으로 各種 仏 및 菩薩을 배치한 仏畵를 말함)

특히 在來의 傳統的 二大宗派의 本山인 曹溪宗 曹溪寺와 太古宗 法輪寺가 勿論 都市型 仏寺인 關係도 있겠지만, 各各 單仏殿型으로서 釋迦 三尊仏만을 須彌壇에 안치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니 이는 在來式 多仏殿型 仏寺가 차츰 單仏殿型으로 改革의 推勢를 보이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는 特記할 만한 현상이라 보겠다. 單仏殿無 仏型으로써는 密教系의 大韓仏教 真覺宗과 円仏教를 들 수 있으나 其中 円仏教는 이를 仏教로 認定할 것인가에 關하여서는 의문시되고 있다.

### 나. 各仏教宗派의 現勢와 分布統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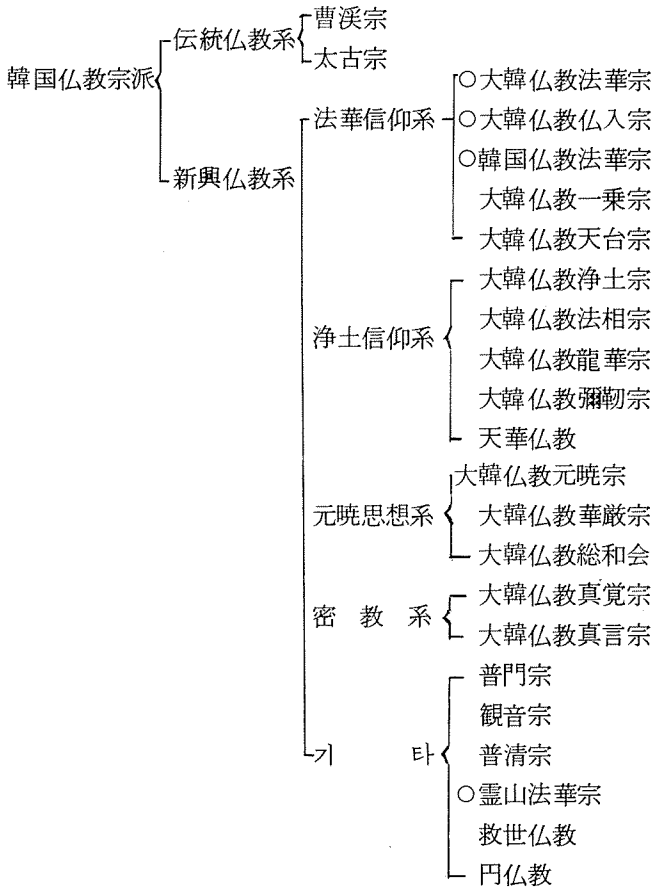
仏教 各種派中 信徒數가 가장 많은 宗派는 옛날부터 그 法統을 繼承해오는 曹溪宗과 太古宗이며 全體 信徒數의 七割以上을 차지하며 그 다음이 法華宗, 円仏教, 天台宗, 一乘宗 등의 順이다. 寺庵, 僧侶, 信徒 등의 詳細한 數는 第3表와 같다.<sup>49)</sup> (註(47)은 第3表參照)

## 第2節 新興佛教系建築

### 1. 法華信仰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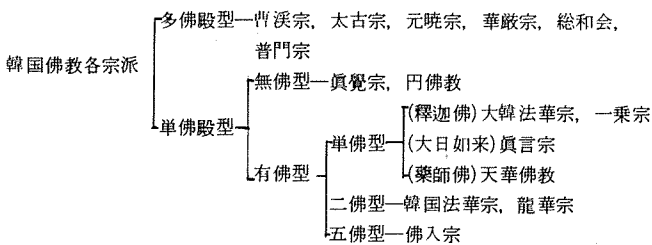
各 宗派는 大體로 法華經을 所依經典으로 하며 佛殿의 건축은 單佛殿型이고 佛壇에 安置된 佛像의 數도 釋迦 單佛像 또는 많아야 五佛以內 程度의 佛像을 안치하며,

(第1表) 韓國仏教宗派의 教理上 分類



但, ○印은 日本 日蓮宗系印.

(表2表) 韓國佛教宗派의 建築上 分類



(第3表) 韓國佛教의 教勢現況(宗教總鑑 1973) (47)

宗團名	寺庵數	僧侶數			信 徒 數		
		男	女	計	男	女	計
大韓佛教彌勒宗	5	—	—	67	38,710	29,420	68,130
大韓佛教法相宗	15	36	39	75	31,012	61,559	92,586
大韓佛教法華宗	781	—	—	1,530	—	—	980,670
大韓佛教普門宗	4	—	—	170	31,275	75,512	103,787
大韓佛教佛入宗	25	40	91	131	2,000	62,300	64,300
大韓佛教龍華宗	12	76	68	144	7,450	11,450	18,900
大韓佛教元曉宗	50	198	59	257	96,090	203,299	299,389
大韓佛教一乘宗	226	128	133	259	113,957	193,907	307,864
大韓佛教淨土宗	7	—	—	12	2,825	15,201	18,026
大韓佛教曹溪宗	1,255	8,251	5,153	13,404	2,626,082	3,246,920	5,873,

(47) 週間宗教社, 前掲書 p690

宗團名	寺庵數	僧侶數			信 徒 數		
		男	女	計	男	女	計
大韓佛教眞覺宗	98	33	101	134	60,550	171,450	231,980
大韓佛教眞言宗	16	6	12	18	—	—	14,386
大韓佛教天台宗	93	184	108	292	286,181	198,730	484,911
大韓佛教總和會	84	25	11	36	3,489	7,753	11,242
大韓佛教華嚴宗	30	—	—	57	—	—	87,800
韓國佛教法華宗	34	25	26	51	1,450	9,690	11,140
韓國佛教太古宗	1,639	2,374	356	2,730	681,367	800,360	1,481,727
計	4,374	11,374	6,157	19,367	3,982,438	5,084,531	10,149,840

宗團名	教室數	教 職 者 數			信 徒 數		
		男	女	計	男	女	計
圓 佛 教	186	386	536	904	228,372	408,130	636,502

天台宗祖인

佛殿의 형식도 現代式建築樣式을 많이 채택하고 있는 것이 共通의 傾向으로 볼 수 있다.

가. 大韓佛教法華宗

本宗은 高麗時代 天台宗祖인 大覺國師를 宗祖로 하여 天台宗의 法系를 復活시킨 것이며 法華經을 根本經典으로 하여 1956年 法華宗을 創立하였다. 建築의 特色으로는 山神閣, 亡星閣, 神像壇 등이 없으며 單佛殿 現代式으로 하여 釋迦如來만을 佛壇에 安置한다. 全國에 近 八百餘 寺庵을 가진, 新興佛教宗派中에서는 首位의 大宗派이다.

但, 地方의 佛寺는 傳統의 韓式의 建築樣式을 많이 擇하고 있다.

大法精舍(서울 城北洞 93)

大法精舍는 法華宗의 本山이며 代表的 寺刹이다. 1971년에 新築된 이 建物は 大雄殿을 南向에 配置하고 그 左側에 梵鐘閣이 설치된 單佛殿型佛寺이다.

大雄殿 建物は 鉄筋콘크리트 現代式 3층 건물이며 1, 2층은 僧房이고 設問을 통하여 알아본 결과, 술, 담배, 肉食과 帶妻長髮은 沙門이라 할 지라도 허용되므로 僧房은 一般住宅에 準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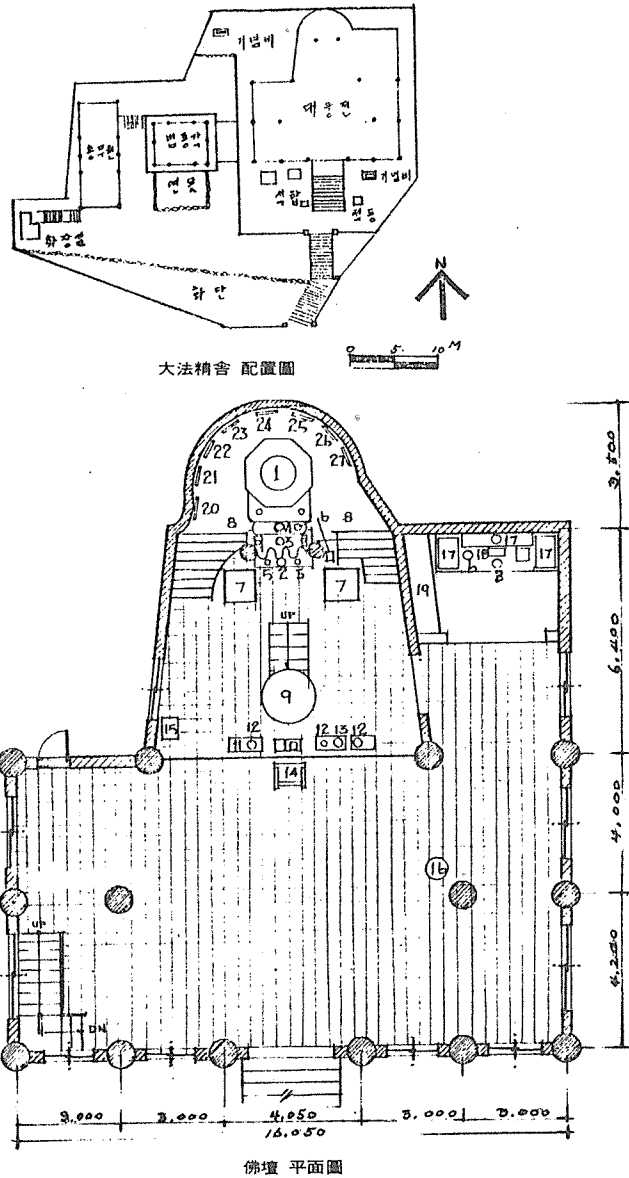
3層은 佛殿이며 地形關係로 佛壇左側을 건축할 수 없어 全体平面이 若干 ㄱ字型이다. 配置 및 3層平面은 第1圖를 参照할 것. 반자에는 龍 8마리의 木刻에 붙어 있고 바닥은 무늬목이 깔려있다.

○佛壇의 配置

佛壇을 設置하기 위하여 建物の 北側中央部分을 平面에서 보면 平円形 Apse 模樣으로 突出시키고, 約15cm 높여서 內陳바닥보다 1.2 m 높이어 佛壇을 設置하되 佛壇中央左右에 円柱를 세우고 円柱밖으로 左右階段을 설치하여 오르내릴 수 있게 되어있다. 佛壇中央에 三重須彌壇을 설치하고 그위에 八角 3段의 蓮花무늬가 없는 台座를 設置하고 그위에 西藏宰觀波型의 佛龕을 올려놓았으며, 그속에 前面에서 佛像을 보이게 앞을 트고 合

掌釋迦單獨結跏趺坐像이 안치되어 있으며  
佛像에는 또 다시 合座와 아울러 後光이 장만되어 있다.  
半円形의 內陳壁에는 부처님의 8相화가 액자에 넣어져  
서 돌려 부쳐져 있고, 內陳 中央前面에 設法机, 木鐸台,  
坐鍾台, 椅子 등이 配置圖(第104 圖)에 表示된 것과 같  
이 配置되었으며 佛壇右側은 靈位牌를 모시기 위한 壇  
이 別途로 장만되어 있다.

佛壇全景은 (第2 圖)를 参照할 것.



1 圖 大法精舍(大韓佛敎法華宗總本山)筆者實測

- |          |           |           |
|----------|-----------|-----------|
| 1. 釋迦牟尼佛 | 11. 經床    | 20. 興率來儀相 |
| 2. 香爐    | 12. 木鐸    | 21. 毘濫降生相 |
| 3. 茶器    | 13. 坐鍾    | 22. 四門迦觀相 |
| 4. 마지佛器  | 14. 椅子    | 23. 躑城出家相 |
| 5. 煙獨    | 15. 祝願文函  | 24. 雲山修道相 |
| 6. 花     | 16. 보성계   | 25. 樹下降魔相 |
| 8. 코끼리花瓶 | 17. 釋迦牟尼佛 | 26. 鹿苑轉法相 |
| 9. 法床    | 18. 連坐    | 27. 雙林涅槃相 |
| 10. 祝願貞子 | 19. 선반    |           |

### 나. 大韓佛敎佛入宗

1965년 太虛 李泓宣이 創宗한 法華信仰系의 佛敎宗派  
이며 法華經을 所依法典으로 하며 釋迦佛을 主佛로 하여  
 左二位, 右二位의 菩薩像을 安置한다. 設問事項을 要約  
 하면, 佛殿은 大雄殿 單佛殿으로 한 韓國式包作樣式을取  
 하되 철근콘크리트 등의 現代式 材料도 무방하며 都市  
 地方을 通하여 3層程度의 高層化된 集中式도 贊成하고  
 있다. 敎職者의 結婚은 自由이고 僧侶는 寺刹內에 있도  
 록 하되 家族은 寺刹外에 住居를 두도록 하며 座式溫突  
 을 願한다.

將來 增設希望建築物로서는 納骨堂, 法堂, 講堂, 祈禱  
 室, 布敎會館, 青年會館, 修道院, 寮養院 등을 願하고 있  
 으나 寫府殿, 應眞殿 등의 佛殿은 必要로 하지 않는다.

最近 落成한 龍乘寺(東大門區 踏十里洞 149)는 鐵筋  
 콘크리트의 現代式建築이며 寺刹의 特色을 具備한 아름  
 다운 外觀을 가진 優秀한 建物이다.

### § 妙覺寺(서울 東大門區 崇仁洞 178의 8)

佛入宗의 總本山이며 中庭에 面하여 大雄殿과 鐵筋  
 콘크리트 法堂建物이 있으며 中庭에는 石塔, 石燈이 있  
 다.

大雄殿에는 釋迦牟尼 主佛, 左神處에 安立行·無變行菩  
 薩 右補處正行·上行 兩菩薩이 안치되어 있으나 이 建物  
 은 낡아서 不遠 撤去할 予定이라고 한다.

法堂은 現代式 三層建物이며 屋上 平地붕위에는 露天  
 立像大佛이 서있다. 1層은 僧房, 2층은 기도실, 3층  
 法堂이며 法堂에는 佛壇에 釋迦 單佛이 安置되어있고 右  
 側에 靈壇이 마련되어 있다. 佛壇前面에는 法床을 설치  
 하고 그 주위에 木탁, 磬, 木, 經床 등이 있으며 左側  
 壁에는 說法用卓子 및 黑板이 준비되어 있고 信徒席이  
 넓게 마련되어 있다.

建物配置 및 法堂 佛壇配置는(第3 圖)와 같다.

佛具—主要佛具의 종류로서는 법주, 磬, 법종, 대북,  
 좌중, 木鐸, 木, 여이, 竹篋 등이 있다.

### 다. 韓國佛敎法華宗(서울 城北區 三仙洞 2街 2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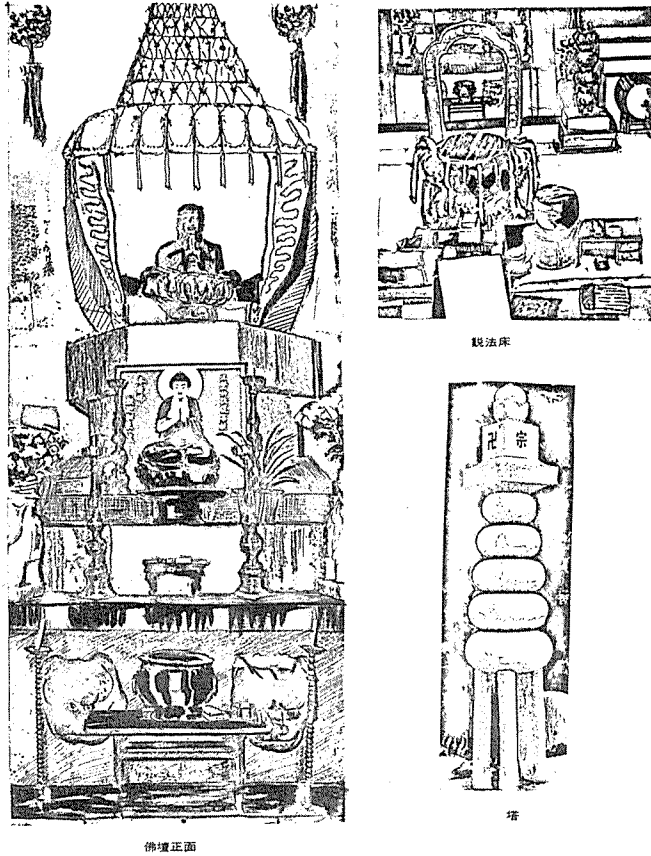
日政時代부터 日本 日蓮宗 本門 本能寺와 法緣을 맺  
 고 布敎를 하여오던 金慧宣法師에 依하여 1960年 創宗  
 登錄되었으며, 所依法典은 大乘抄法華經이다. 現地踏查  
 하여 設門을 通하여 알아본 결과, 法堂外에서는 肉食이  
 허용되고 머리를 기른다던가 私服차림도 인정되는 相當  
 히 進歩的 宗派임을 알 수 있었다.

佛寺建築은 山地에서는 韓式建物로 하되 都市心에서  
 는 現代式을 贊成하며 건축재료도 木材가 아닌 現代式  
 材料使用도 可하고 보일라, 電氣 등의 現代式 設備을 하  
 여도 무방하다. 大体로 山地佛寺는 多佛殿分散式보다 單  
 層으로 하고 都市心佛寺는 高層을 願하고 있으며 建物  
 配置方式은 多佛殿 分散式보다 單佛殿集中式을 贊成한다.  
 法堂建物은 現代式도 좋으나 外觀은 蓮꽃을 表現한 De-  
 sign 을 願하고 있으며 法堂을 高層化하였을 경우에

는 大衆室, 圖書室, 研究室事務室, 주방을 추가함이 바람직하다. 法堂内部의 信徒席은 韓式 방석座式이어야 하며, 佛壇에는 佛像으로 釋迦牟尼와 多寶如來 三座만을 모시되 佛殿에는 円靑을 하지 않는다. 法堂에서 사용되는 佛具中 座鍾, 죽비(竹篋), 촛대 등의 형태는 曹溪宗

과 다르다고 하고 있다. 또한 便所는 法堂에서 다소 떨어져 있는 것을 원하고 있다.

僧侶를 法師라 稱하며 法師의 居處는 일반적으로 寺刹外部에 두는것을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建築形式은 現代式住宅建築樣式도 무방하다.



2 圖 大法精舍佛壇(大韓佛教 法萃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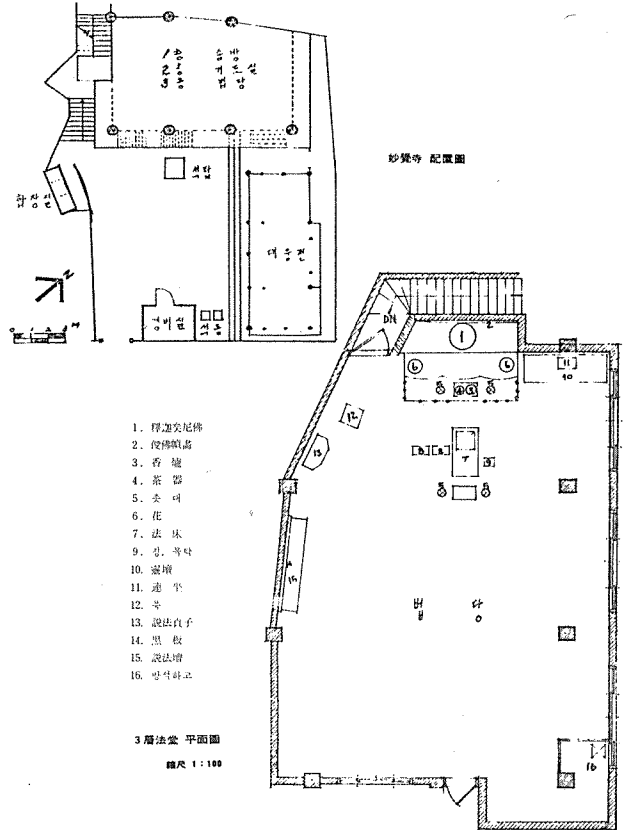
§ 法華寺(서울 城北区 三仙洞 2 街 233)

韓國佛教法華宗의 本山이며 1941年 건축되었다. 蓮꽃 무늬의 虹에 形 부단벽이 正面壁靴上에 솟아있는 組積造의 現代式單層法堂建物は 一般 基督教 教會建物에 가까운 形式의 平面이며 法堂内部 信徒席은 마루널을 깔아 방석에 앉을 수 있게 되어 있다. 正面에 設置된 佛壇은 5段의 階段式으로 되어 最上部 中央에는 佛經이 모셔 있고 그 左側에 多寶如來, 右側에 釋迦如來 二尊佛이 안치되어 있고, 最下段은 巾이 좁은 移動式 須彌壇으로써 그 前面 中央左右에 說法師의 방석이 3개 놓이고 座鍾, 촛대, 기타 佛具配置는 別圖(第4 圖)에 建物平面과 같이 表示하였다.

本堂建物 越便에는 小法堂을 비롯하여 居室, 事務室, 부엌 등이 달린 2層의 現代式建物이 中庭을 사이에 두고 別棟으로 건축되어 있다.

라. 大韓佛教一乘宗

妙法建華經을 所依經典으로 하며 崔浩民和向에 의하여 1969年 文公部에 登錄하였다.



3 圖 妙覺寺(大韓佛教 佛入宗) 筆者実測

一般 法華信仰系에 準하여 釋迦世尊의 佛像만 모시는 單佛殿單佛型 寺刹形式을 택하고 佛寺의 現代化를 追求하는 상당히 先進의 新興佛敎宗派라 할 수 있다.

一乘寺는 一乘宗의 總本山이며 서울 城北区 城北洞 17 9 - 33에 位置하는 韓式建物の 佛寺이지만 芮惠敎總務院長은 現代式 佛敎建築도 否定하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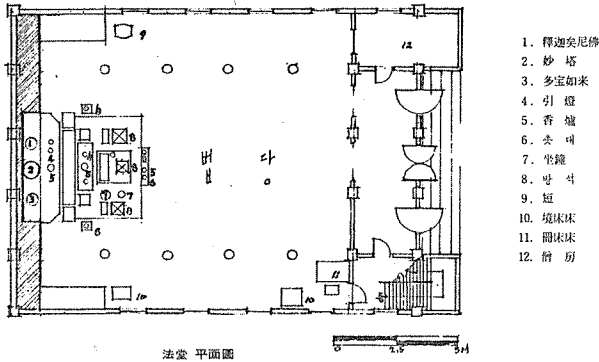
○佛寺：一乘寺의 배치는 釋迦如來 單佛像만 모시는 宗派답게 佛殿도 大雄殿하나 뿐이고 나머지 건물들은 僧房, 事務室이니 그 模樣은(第5 圖)와 같다. 大雄殿 建物は 純韓國式建物로서 1965年 착공하여 1968年에 준공하였으며 正面 5間, 側面 3間의 單層八作지붕이고 外部 2出目 5包, 5出目 12包 1高柱 6梁집이다. 기둥은 배흘림을 가졌고 室內에는 佛壇後面에 맞추어 1列의 內陳기둥을 설치하였다. 內部天障은 우물반자이고 마루는 長株樓를 깔고 문은 교살문 꽃살문 등으로 되어 있다.

○佛壇配置：一乘寺의 佛壇配置는 一般 傳統의 韓式佛寺와 類似하다. 但, 特色은 佛像이 室內에 4개 정도 있으나 全部 釋迦如來佛 一種 뿐이고 菩薩像, 王, 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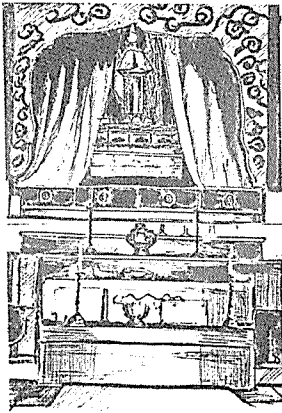
神, 童子, 羅漢, 將軍 等の 諸刻像이 一切 없을 뿐이다. 主佛壇의 須彌壇은 4段으로 되어 있고 左側에 靈壇 右側에 副佛壇이 있으며 香爐, 磬, 坐鍾, 中鍾 碓불함 大鼓 기타 各種 佛具가 配置되었으며 主佛壇 上部에도 또 한 小佛壇이 장만되었으니 그 中央에는 三寶의 眞理를

나타내는 묘탑이 놓이고 左側에 釋迦佛, 右側에 多寶佛이 안치되어 있으며 多寶佛은 모든 것을 증명하는 뜻에서 安置되어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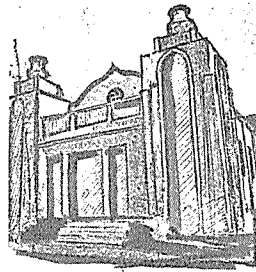
佛殿配置內容과 佛壇外觀의 詳細한 것은(第6圖)와 같다.



法堂 平面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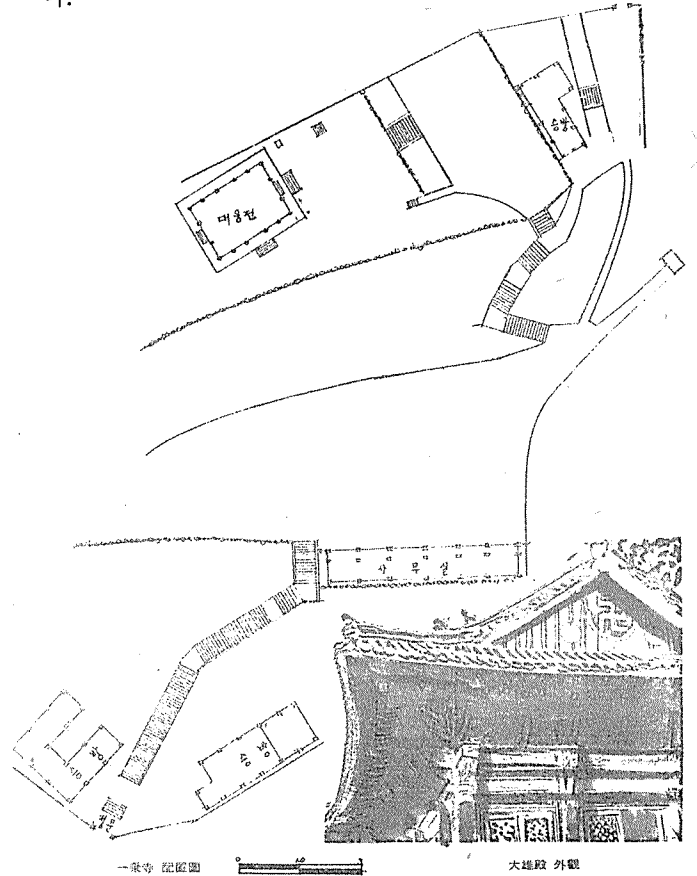


佛壇 全景



佛殿 外觀

4 圖 法萃寺(韓國佛教 法萃宗) 筆者實測



5 圖 一乘寺(大韓佛教一乘宗本山) 筆者實測

## 2. 淨土信仰系

淨土信仰系는 大體로 淨土三部經이 이들 教派의 所依 經典(47)이며 阿彌陀를 信仰하여 將來 極樂淨土에 往生하는 것을 主로 하는 宗派들을 意味한다.

### 가. 大韓佛教淨土宗

申東煥 宗正이 創宗하여 1965年 文公部에 登錄되어 있으며 阿彌陀佛을 主佛로 하며 無量壽經을 所依經典으로 하고 西山大師를 宗祖로 한다고 되어 있다.(47) 寺刹 實例는 位置를 發見할 수 없어서 實測을 할 수 없었다.

### 나. 大韓佛教法相宗

1970年 文公部에 登錄되었으며 眞表律師를 宗祖로 하며 瑜伽經, 點察善惡經을 所依經典으로 하고 彌勒佛을 主佛로 한다(47)

서울에 龜福庵이 있다고 하나 發見하지 못하였다.

### 다. 大韓佛教龍華宗

本宗은 1963年 金德淵이 創宗하였으며 장래 龍華世界에 出現할 彌勒佛을 本尊으로 하는 比丘尼僧의 淨土 信仰系 宗派이다. 所依經典은 阿彌陀所說經이며 宗祖는

(47) 週間宗教社, 前掲書 p81

眞表律師이다. 本山인 全北 全州市 円覺寺를 訪問하고 設問을 通한 內容을 보면, 本殿인 彌勒殿 以外에 極樂殿을 추가하여도 무방하며 기타 禪堂, 僧房, 講堂 等を 願하고 있다. 建築樣式은 佛殿은 大體로 在來式 包作 韓式 建物로 하되 材料는 콘크리트 等の 現代式 材料를 使用하는 것도 可하며 韓式外觀인 限 高層도 反對하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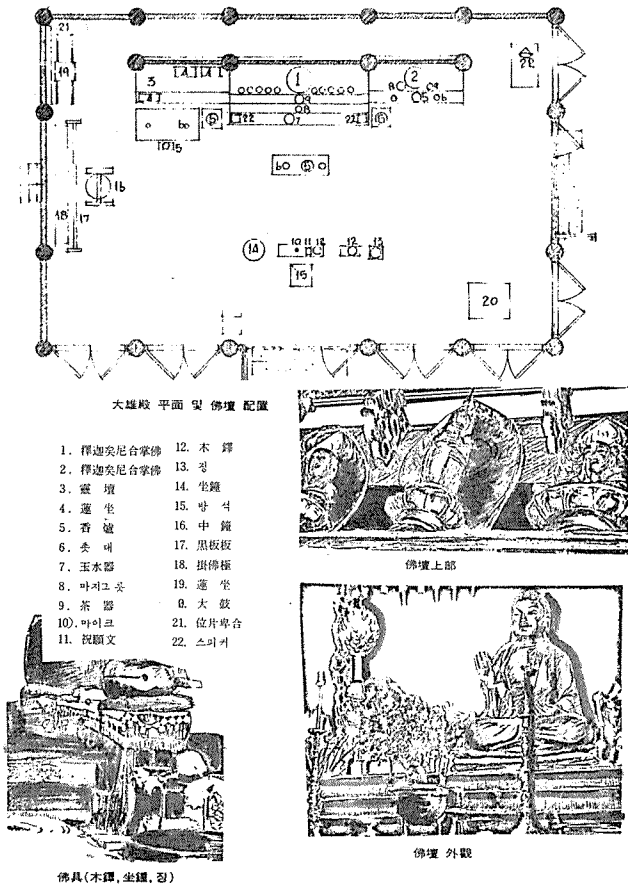
僧侶의 夫婦生活, 담배, 酒類 等은 일절 禁하며 坐式 生活을 主로 하고 있다. 僧房은 現代式 아파트 等도 可하며 代表的 末寺로서는 全北 金堤郡 金山面 淸道里에 龍華寺가 있다.

### § 円覺寺(全州市 完山洞 272)

龍華宗의 總本山이며 全州市內 都市型 單佛殿佛寺이다. 寺刹內部에는 金堂인 彌勒殿과 祖師堂, 僧房, 禪堂 等이 中庭 주위에 배치되며 中庭에 梵鍾閣이 있다. 彌勒殿은 正面 5間 側面 2間, 2翼工의 八作 木造建物이며, 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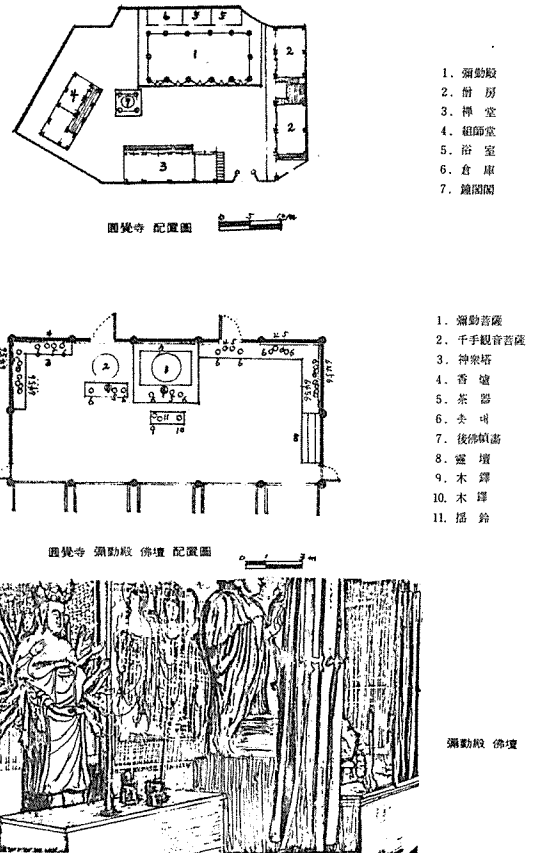
部に主佛로 彌勒佛의 結迦跏坐像이 안치되고 正面左側に 千手觀音立像이 있으며 그 주위에 靈壇, 神衆壇을 두고 正面 左右의 3面壁에는 後佛幀畫가 걸려 있다. (第7圖参照) 僧房建物は 内裝과 外裝 共に 一般 現代式建物에 準하여져 있다.

라. 大韓佛教彌勒宗



6圖 一乘寺佛壇配置圖 筆者實測

彌勒宗을 現地踏查하기 위하여 全州市 豊南洞 3街 16의 7의 全北支部를 찾아 갔으나 同所는 個人住宅이고 찾을 도리가 없어 調査를 못하였다. 文獻上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964年 文公部에 등록되어 있으며 瑜伽經이 所依經典이며 宗祖는 眞表律師이고 彌勒佛을 本尊佛로 하고 있다. (47)



7圖 圓覺寺(全州, 大韓佛教龍萃宗) 筆者實測

마. 天華佛教

李淑峰外外 3人의 女史에 의하여 創宗되어 1964年 登錄되었다. 彌勒佛을 本尊佛로 하고 있다. (47) 登錄되었다. 瑜伽密教를 宗典으로 하되 所依經典은 華嚴經이며, 藥師를 主佛로 하여 藥師曼多羅와 藥師十二神將을 安置하며 壇君과 詞梨帶母를 曼多羅에 安置함으로써 土看化된 韓國의인 佛敎로 보고 있다.

서울 樓上洞 166-204에 있는 龍雲寺를 現地踏查하였으나 現寺刹은 移轉되어 없으며, 地方의 代表的인 寺刹로서는 忠南 天原郡 北面 梧谷里에 鳳冠寺가 있다. 設問을 통한 調査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建築構造: 木造 韓國樣式을 願하며 最小限 法堂, 講堂, 僧房을 필요로 하며 可及의 藥水浴湯에서 몸을 깨끗이 씻고 物理療法을 한 後에 法堂에 들어가 불공을 드리는 것이 理想的이라고 한다. 都心地에 있어서는 集中式 重層佛殿도 可하며 이러한 때에는 上層을 法堂으로 하고 下層을 其他室로 함이 좋다고 한다.

(47) 週間宗教社, 前掲書 p82 (47) 週間宗教社, 前掲書 p82

主로 敎職者가 女僧이며 結婚을 인정하고 있고 僧房은 現代式住宅設備을 갖추어도 무방하되 座式 温突을 원하고 있다.

3. 元曉思想系

元曉思想系宗派는 大部分 華嚴經을 所依經典으로 하며 釋迦牟尼를 本尊佛로 하고 元曉大師를 宗祖로 하고 있다. 따라서 寺刹形式은 韓國古建築의 多佛殿型이 많으며 韓國의 傳統的인 宗派인 曹溪宗, 太古宗과 그 건축형식이 가장 가까운 경우를 많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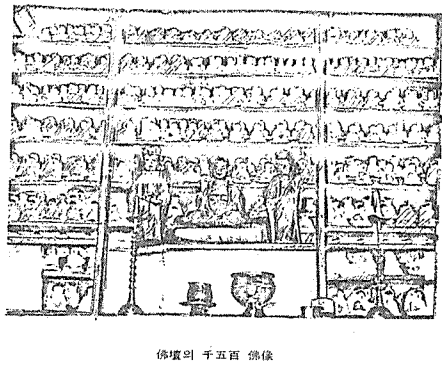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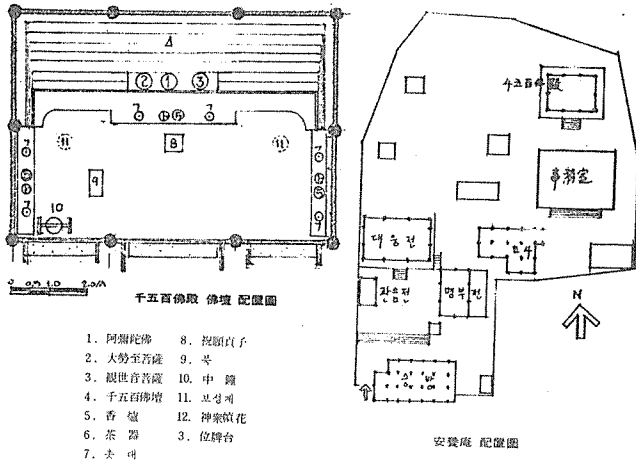
가. 大韓佛教元曉宗

元曉大師의 思想을 骨子로 하되 所依法典은 華嚴經이며 1963年 創宗 登錄하였다. 大体로 易道人이 敎役者中 大部分이고 主로 京畿道와 江原道에 많이 布敎가 되어 있다. (47) 本宗의 寺刹인 서울 東大門밖 安養庵은 傳統的 曹溪宗系佛寺와 큰 차이없는 多佛殿型이지만 安養庵의 敎務部長 辺 東雲氏와의 設問內容을 보면 佛像도 釋

迦佛만 安置하는 것을 願하고 大雄殿을 除外한 모든 건물의 現代化를 肯定하고 帶妻僧을 인정하니 상당히 진보적이며 不遠 많은 現代의 佛寺가 예측된다.

§ 安養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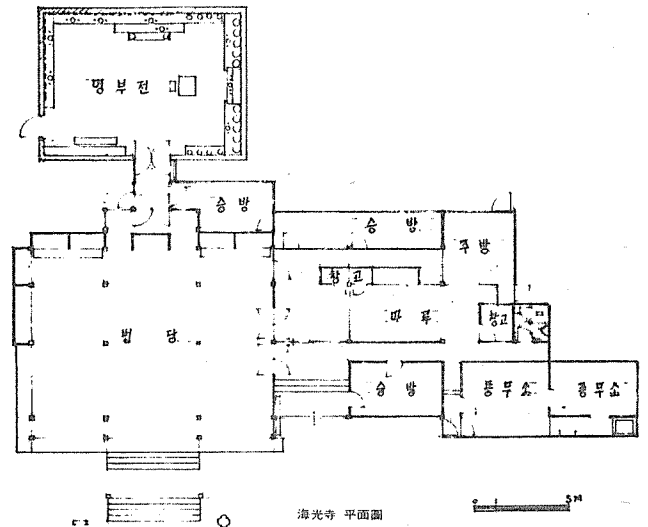
서울 東大門區 昌信洞 130 에 位置하며 상당히 오래된 寺刹로 보이는 것으로 미루어 元曉宗으로 近來에 와서 吸收된 寺刹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現在建



8 圖 安養庵 千五百佛殿(大韓佛教 元曉宗) 筆者實測

物로서는 大雄殿, 冥府殿, 千五百佛殿, 觀音殿, 山神閣, 七星閣, 僧房 等이 있는 多佛殿型佛寺로서 一般傳統의 佛寺와 大同少異하다. 異彩로운 것은 觀音殿이 天然石壁에 觀音像을 부각한 앞의 岩壁에 부치어져 佛殿을 지은 것과 一般 佛寺에 遜하지 않은 千佛殿이 있음이라 하겠다.

佛殿配置와 千佛殿의 平面 및 外觀은 第8 圖와 같다.



9 圖 海隆寺(大韓佛教 華嚴宗) 筆者實測

나. 大韓佛教華嚴宗

創宗主 韓永錫師가 1965年 文敎部에 創宗 登錄하였으며, 元曉思想系 宗派로서 所依經典은 華嚴經이고 本尊佛은 釋迦牟尼佛이며 宗祖는 元曉聖師이다. 設問內容을 보면, 大体로 曹溪宗 等과 같은 多佛殿形式의 寺刹로 하되 現代式 材料를 使用한 包作 韓式外觀을 願하며 佛殿, 僧房 等을 行廊으로 연결한 集中式建物도 可하고 山地型은 分散式을 贊成하고 있다. 僧侶의 起居는 境内로 하되 座式 온돌이 좋으며 都心地에 高層化할 때에는 3층 정도로 하고 地下층은 幼稚園, 1層 僧房, 2層 佛敎會館, 3층 法堂으로 함이 바람직하다.

§ 海光寺(仁川市 新興洞 1의 4)

本 佛寺는 日帝時代의 건물로서 華嚴宗 總本山이다. 法堂, 冥府殿, 僧房, 宗務所 等이 行廊으로 연결되어 全体가 한 건물로 되어 있으며, 法堂에는 主佛로 釋迦佛,

左補處 地藏菩薩 右補處 觀世音菩薩을 主佛壇에 安置하고 그 주위에 神衆壇, 七聖壇, 山神壇, 獨聖壇, 現王壇, 靈壇 等을 모시고 있으며 法堂中央에 法床卓子, 북, 징, 을 설치하고 殉國烈士 祈願壇도 설치되어 있으며 기타 詳細한 것은 筆者가 實測한 平面, 立面(第9 圖 参照) 및 法堂, 佛壇配置(第10 圖)를 各各 参照할 것.

기타 本 寺 境内에는 ㄱ字型 平面을 가진 寮舍體 一棟과 入口에 鍾閣이 있다. 건물구조는 日本式 木構造 합각 日本式 結繩기와 지붕이며, 梵鍾閣은 8角 韓式 翼工 지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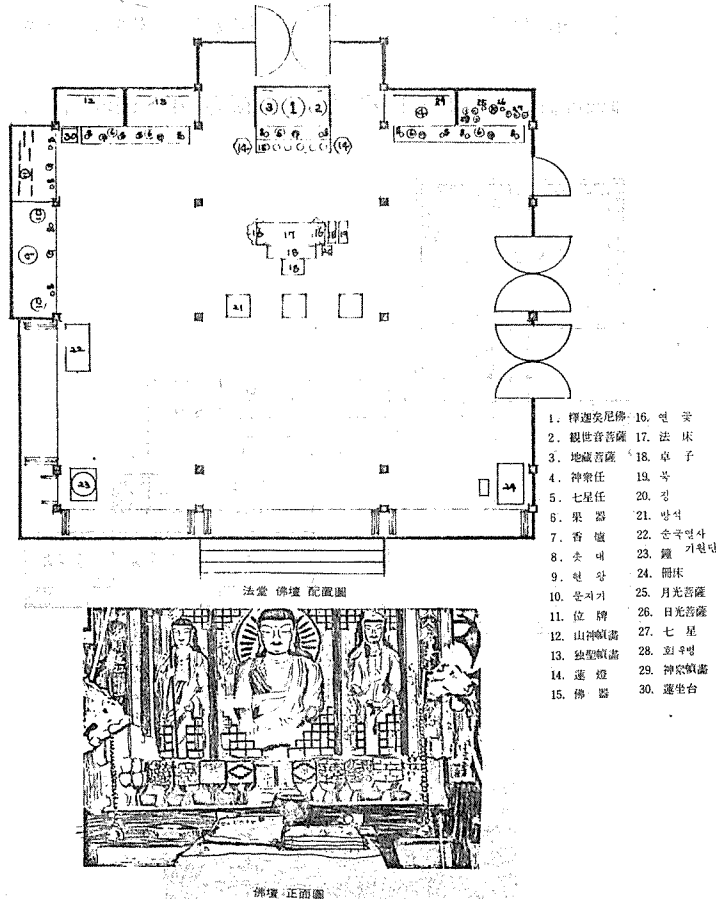
4. 密 教 系

密敎의 所依法典은 大日經, 金剛頂瑜迦經, 蘇悉地經의 三部大經이라 하는데 曼多羅佛像圖로서 그 內容을 表示한다.(6) 韓國의 眞覺宗, 眞言宗이 이에 해당하며 佛殿의



形態는 大日如來單佛單殿型 또는 單殿無佛型이고 건축구조도 벽돌 또는 콘크리트 등의 現代化한 方式을 채택하는 禪단을 걷는 宗派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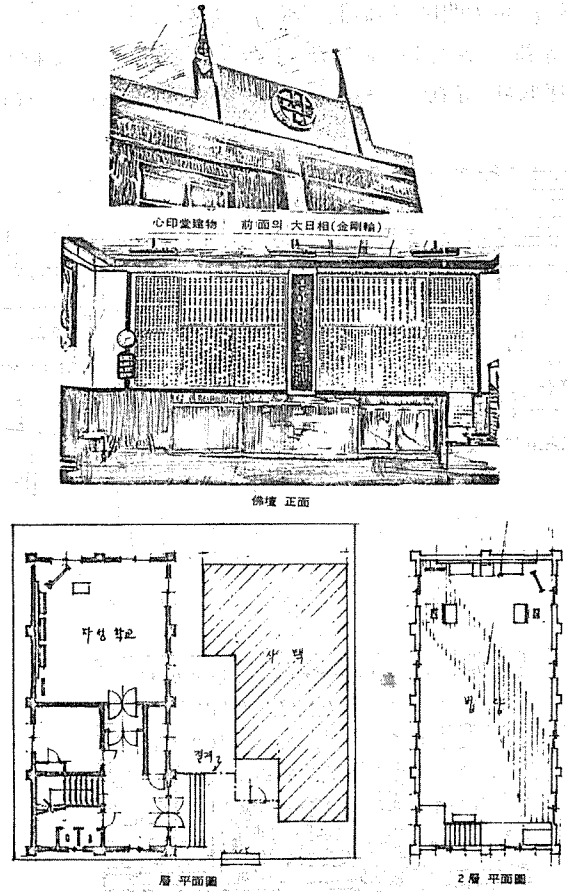
曼多羅라는 것은 大日如來를 中心으로 各佛, 菩薩, 神將 등을 四方에 배열한 佛像畵(26) 를 보통 말한다.



10 海光寺 法堂佛壇配置 筆者實測

가. 大韓佛教眞覺宗

本宗은 密敎에 屬하며 密敎에서는 結印이라하여 부처님의 說法을 갖가지 손가락의 形態로 表示한다. 眞覺宗의 法敎門에 依하면 心印은 곧 陀羅尼를 내마음에 새겨있는 佛心印三昧王을 가리켜서 말함이요...64



11 新村心印堂(大韓佛教 眞覺宗) 筆者實測

則 心印은 마음속의 印法임을 알 수 있다.

本宗은 1949年 創立되었으며 本部를 總印院이라고 各教堂을 心印堂이라 稱하며, 各佛殿建築은 一般學校의 講堂이나 或은 新敎敎會建築을 상기시킬만큼 간소하고 현대적이며 佛殿内部에는 一切 佛像을 安置하지 않는 單殿無佛型 現代式寺刹形式이라 할 수 있다.

眞覺宗의 總印院은 서울 城北區 下月谷洞 22이며 總印院에는 前記 宗祖殿 心印堂, 事務室 등의 건물이 있다.

§ 新村心印堂

서울 西大門區 滄川洞 57~31에 위치한 現代式 2層의 鐵筋콘크리트 건물이다. 下層은 자성학교 교실이고 2層 佛殿은 講義室等 一般建物과 다를 바 없고 佛壇에 해당하는 前面壁 中央에 六字眞言 액자가 걸려있고 左右에는 敎理를 全部 한글로 記入한 것이 揭示되어 있다.

佛壇部分은 간단한 단을 장만하고 中央에 喜捨箱을 설치하였을 뿐 一切 佛像은 볼 수 없다. 正面左右에는 說法台를 坐式으로 설치하고 信者나 敎役者가 一切 坐式

(6) 李喜秀, 前掲書 p222要約 (26) 佐和隆研, 佛像圖典(東京, 吉川弘文館 1969)  
(64) 孫珪祥, 법불교문(서울, 眞覺宗 1972) p43

이다. 正師舍宅(住持舍宅)은 心印堂과 인접한 獨立 一般住宅과 同一하며 可反的이런 心印堂과는 울타리境界가 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第19圖는 新村心印堂의 配置 및 各層平面과 建物外部 正面의 大日相(金剛輪) 및 佛壇全景이다.

나. 大韓佛教眞言宗

孫榮振 宗主가 慶北 大邱市 大鳳洞에서 創宗하여 1963年 文公部에 登錄하였다.

大日如來를 本尊으로 惠通國師를 宗祖로, 大日經을 所依經典으로 하고 있다. 密敎에 屬하는 單佛殿單佛型 寺刹로서 大体로 現代式建築構造를 擇하고 있다. 上記 大邱에 總院이 있고 서울 龍頭洞 52의 2에 眞光院이 있으며 그 건축내용은 다음과 같다.

§ 眞光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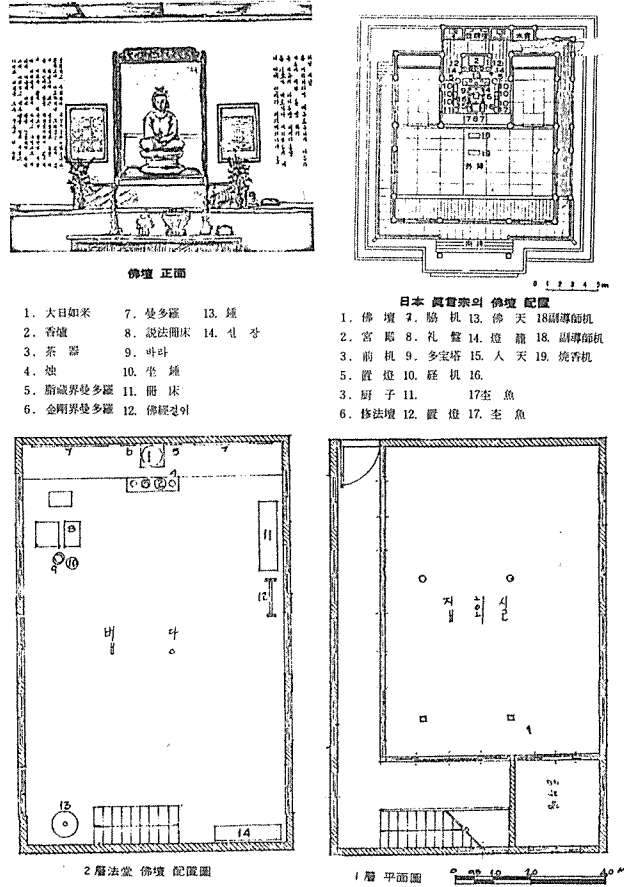
壁瓦造 2層建物이며 지붕은 韓式 8作지붕으로서 円靑이 없다. 下層은 集會室이며 2層은 法堂으로 되어 있고 布敎師 舍宅이 佛殿에 가까이 인접하여 後面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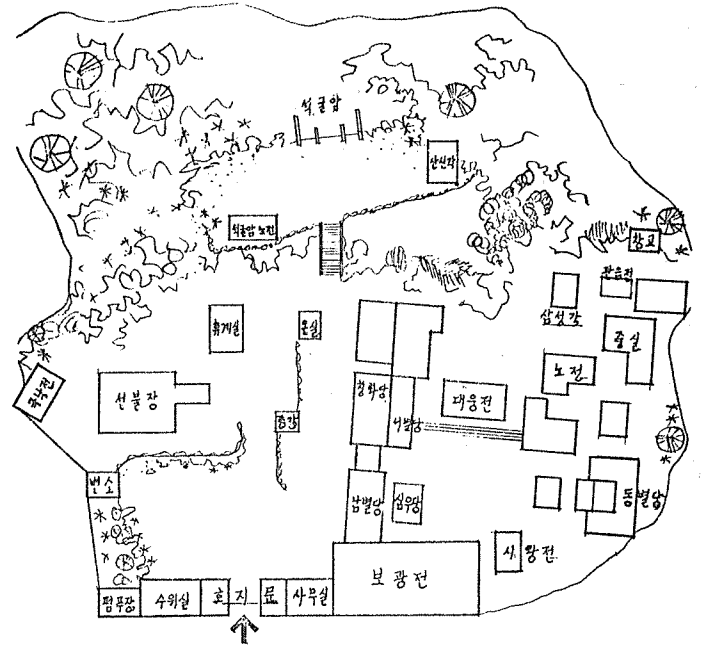
法堂의 配置는, 中央前面에 須彌壇을 設置하고 台坐를 놓고 大日如来 單佛像을 安置하고 左右에 各各 金剛界 曼陀羅 佛畫를 액자에 넣어 壁에 부치고 또 그 左右壁에 宗旨의 四智梵語, 佛讚 等の 한글을 부친다. 須彌壇 앞에 작은 香爐台를 하나一段 낮게 附設하고 촛대, 香爐를 設置하게 되어 있으며 說法机, 기타 配置는 別圖(第

115圖)와 같다.

本宗은 大体로 日本의 眞言宗과 같은 系統이므로 日本 眞言宗의 佛壇配置를 參考로(第12圖)에 例示하였으며 本宗에서 使用하는 各種 佛具는 本論 佛具項에 準한다.



12圖 眞光院(大韓佛教 眞言宗) 筆者実測



13圖 普門寺 配置圖(大韓佛教 普門宗)

### 5. 其他宗派

#### 가. 大韓佛教普門宗

本宗의 本山인 普門寺는 唯獨 調查·実測 等을 不許하므로 佛殿 및 佛壇配置 等の 圖面을 作成할 수 없고 入口에서 觀測하는 안내서와 宗教總鑑을 參考하여 大畵한 內容을 記述하고자 한다.

創宗과 教理에 있어서는, 1972년에 創宗되었으며 釋迦 牟尼佛을 信奉하되 觀音經을 所依經典으로 하고 觀音菩薩을 本尊으로 하고 있다. 本宗의 首寺刹인 普門寺의 경우를 보면 各種 韓式佛殿을 大部分 具備한 點으로 보아 一般 傳統의 宗派樣式에 가까운 多佛殿式方法을 채택하는 比丘尼宗派로 인정된다.

#### § 普門寺

樓形의 正門인 護特門 内部境内에는 118年 되었다는 가장 오랜 大雄殿을 비롯하여 觀音殿, 極樂殿, 十王殿 等の 諸佛殿과 卍靈閣, 三聖閣 및 梵鍾樓가 있고 慶州石

窟庵을 摸倣한 石窟庵子를 만들었다. 그밖에 講堂 및 禪堂으로 쓰이는 選佛場과 位牌安置 및 修練場으로 쓰이는 普光殿과 各種 附屬建物로 構成되어 있다. 大部分의 건물이 최근에 完成된 8作 및 맞배지붕의 韓式建物들이며 大雄殿에는 釋迦 三尊佛의 補陀가 文殊·普賢兩菩薩이다. 十王殿에는 地藏佛像이 있고 주위에 十王壁浮刻이 있다. 実測을 不許하므로 各佛殿의 大畵한 寫生配置만을 表示하면(第13圖)와 같다.

#### 나. 圓佛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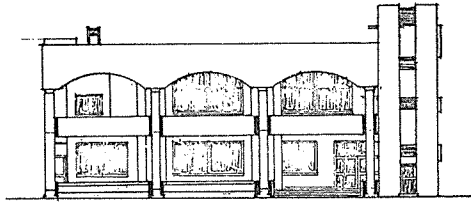
圓佛教는 韓國에서 처음 創宗한 宗教로서 佛敎를 根本教理로 하여, 佛像을 代置해서 一圓相을 信仰의 標本으로 하며 모든 禮法儀式, 建築 等을 現代에 적합하도록 간편하게 하고 出家 修行者에 對한 結婚을 制限하지 않으며, 各地方의 教堂을 지부, 지소, 선교소, 출장소 等으로 稱한다. 其他 圓光大學을 비롯하여 많은 中高等學校의 教育事業도 大規模로 하고 있다.

本宗派는 1924年 全北 裡里의 現中央本部 所在地에 佛法研究會를 설치함으로써 비롯된다.<sup>(4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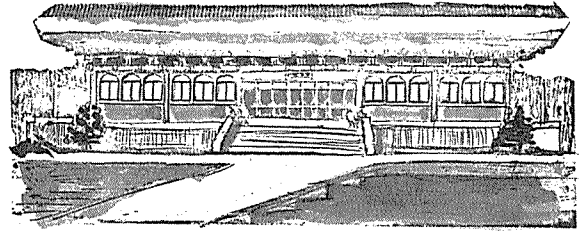
§ 圓佛敎 裡里本部(이리시 갈산동 204~1)

裡里 圓光大學에 隣接한 裡里本部를 踏査한 結果, 그 配置를 살펴보면 中央의 大中庭을 中心으로 하여 正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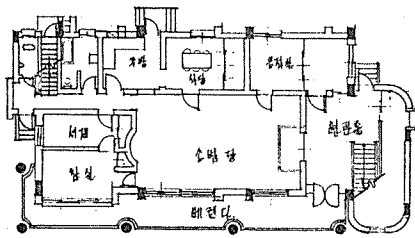
中央에 永慕殿이 있고 그 右側에 半百年紀念館, 後面에 女子 및 女學生 寄宿舍·食堂이 놓이며, 半百年紀念館 反對便에 大覺殿 및 鍾閣이 놓이고 永慕殿後面은 울창한 山林의 숲이 있으며 그 左側 金숙언덕에 大宗師의 旧屋과 大宗師의 舍利石塔이 놓여 있으며 永慕殿 左側에도 大石塔이 놓여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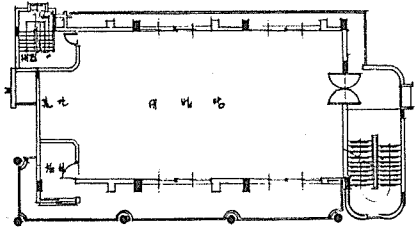
正面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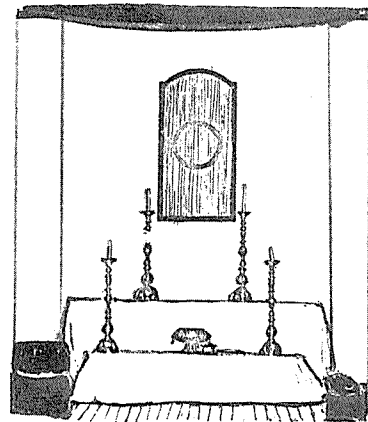
裡里本部 永慕殿外觀



1層 平面圖



2層 平面圖



圓佛敎 佛壇의 1圓相

14 圖 圓佛敎 新村支部(朴金永氏設計)

15 圖 圓佛敎

① 大覺殿: 布敎初期에 건축한 法堂으로서 構造는 現代式講堂을 연상시키는 건물이며, 約 500 名 以上을 收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信徒席 中央正面에 演壇 模樣의 한 단 높은 佛壇이 장만되고 一圓相이 安置되었으며, 주위는 蓮花, 촛대, 香爐 등이 둘러 놓여져 있고 그 右側前面에 持殊한 鑿어 앉을 수 있는 形式의 說法台가 놓여 있고 그 뒤에 피아노가 놓여 있다. 이 法堂의 標準形이라고도 볼 수 있다.

但, 信徒席은 移動式 椅子를 使用한다.

② 永慕殿: 祖師殿에 해당하는 건물이며 超現代式으로 잘 調和되게 건축한 將來佛殿의 方向을 어느 程度 提示해 주는 Design 이라고 할 수 있다. 總 鐵筋콘크리트 平지붕 構造이며 正面의 넓은 階段을 올라서면 左右에 大型 香爐가 놓여있고 正門이 있으며 各窓은 龕型이다. 内部에는 큰 階段式 祭壇을 設置하고 中央에는 開宗祖의 眞影과 各 先烈의 位牌가 안치되어 있다. (第15 圖參照)

(47) 週間宗教社 前掲書 p545要約

③ 半百年紀念館: 劇場形式의 스테디엄式 敎人席을 가진 約1500名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大學講堂式의 大說法室이며 演壇에 해당하는 部分은 圓佛像의 祭壇으로 꾸며져 있으며 督敎의 Pulpit을 연상하는 說法台가 左側에 놓여있고 右側에는 피아노가 있다.

§ 圓佛敎 新村支部(서울시 창천동 53)

서울 市內에는 圓佛寺 鍾路支部(김 진천氏 設計), 苑南支部, 新村支部(朴 金永 設計) 등이 있으며 三者가 大同少異하고 그 중 가장 最近에 完成된 新村支部를 보면 2層 鐵筋콘크리트造의 現代式 平지붕 건물로서 下層은 出入口, 小法堂 및 寢室, 炊事場, 食堂, 書濟 庇接室 등을 具備한 敎職者 舍宅이고 2層은 法堂이다. 法堂은 講堂形式으로서 前面의 祭壇에 一圓相이 안치되었음은 裡里 大覺殿과 한 가지라 할 수 있다. (第14圖)는 圓佛敎 新村支部建物の 各層平面과 立面圖이며 (第15圖)는 一圓相佛壇이다.

### 第3節 佛寺建築에 관한 設問統計

장래 韓國佛教 寺刹建築의 方向을 定立하는데 參考하기 위하여 主要寺刹 22個所를 訪問하여 住持 其他 寺刹 主要職責에 계신분등을 相對로 設問하였다. 22個 寺刹中 傳統宗派라 할 수 있는 曹溪宗, 太古宗系가 12寺이고 新興宗教系 寺刹이 10寺이다. 이 중 新興宗教系에 對한 設問內容은 前述한 第2節의 各新興宗派의 說明中에서 既히 各各 反映하였으므로 여기에서는 殘餘 傳統系宗派인 太古宗 曹溪宗系의 12寺刹에 對하여 直接 訪問하여 聽取한 內容만을 集計하기로 한다.

#### 가. 設問內容

##### ○ 建築樣式

(1) 山地型 佛寺의 建築樣式은 韓國在來式包作을 具備한 古建築樣式과 現代式建築樣式の 兩者中에서 新築時에는 어느 것을 擇하겠습니까?

(2) 都市型 佛寺를 新築할 때에는 韓國古建築樣式과 現代式樣式中 어느 것을 擇하겠습니까?

##### ○ 建築材料

(1) 佛寺의 新築材料는 在來式 木材를 使用하겠는가 혹은 鐵筋콘크리트 其他 現代式材料를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建物配置

(1) 山地型 佛寺新築에 있어서 各建物の 配置는 在來分散式方法과 動線을 짧게하기 위하여 各佛殿이 서로 연결된 集中式과 어느 쪽을 擇하겠습니까?

(2) 都市型에서는 上記 分散式과 集中式中 어느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 行廊: 건물과 건물을 佛國寺 模樣으로 不燃材로 된 行廊으로 연결하여 비를 맞지않고 通行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僧房

(1) 僧侶의 거처는 寺刹 境内外 어디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2) 僧侶의 僧房에서의 生活方式를 座式에서 椅子를 使用하는 立式으로 改良하는데 對한 意見은 어떠하십니까?

(3) 僧房을 아파트形式으로 하고 電氣 暖房의 現代施設을 하는 것은 어떠하십니까?

(4) 便所를 水洗式 등으로 改良하여 僧房内部에 설치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나. 設問의 集計分析

以上の 設問에 對한 集計는 表(4表)와 같으며 이를 分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 建築樣式

(1) 山地型 佛寺의 建築樣式은 韓國在來式 句作古建築樣式을 大部分 願하고 있다.

(2) 都市型 佛寺는 現代建築樣式으로 함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 建築材料: 在來式 建築材料를 使用하는 것이 옳다는 意見과 現代式材料도 무방하다는 意見이 半半이다.

○ 建築配置: 山地型 佛寺에 있어서는 在來式의 分散式建物配置를 贊成하며 都市型 佛寺는 集中式 單一建物型 佛寺도 찬성하고 있다. 但, 一部는 都心地에서도 垜地만 허락되면 分散式을 찬성하고 있다.

○ 行廊: 佛國寺 模樣으로 建物 相互를 不燃材 行廊으로 連結함을 좋아하고 있으나 一部는 不必要하다고 보는 若干의 意見도 있다.

##### ○ 僧房

(1) 僧房은 結婚하지 않은 僧侶에 對하여서는 寺刹境内에 두는 것을 옳다고 보고 있으며 寺刹에 가까운 境外를 願하는 것도 하나 있었다.

(2) 僧侶의 生活方式는 大部分 在來式의 座式生活를 願하며 立式生活를 찬성하는 의견은 極히 적다.

(3) 僧房建築을 在來式보다 아파트 등으로 하여 暖房, 電氣 等 施設을 하는 것을 찬성하는 意見이 在來式을 찬성하는 의견보다 若干 많다.

(4) 便所는 改良式이라 할지라도 大体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願하며 깨끗한 설비만 되어 있으면 僧房内部에 두어도 可하다는 意見은 過히 많지 않다.

#### 다. 設問에 對한 綜合

佛寺建築改善의 限界를 現時點에서 明示해준다 할 수 있는 以上の 設問에 對한 意見을 綜合하면 다음과 같다.

(1) 山地型 佛寺는 建物 相互間을 行廊으로 連結하는 정도 이외는 在來式의 單層分散式方法을 大体로 찬성하며 건축재료는 包作 기분을 낼 수만 있으면 鐵筋콘크리트 等의 現代式材料를 使用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이 많다.

(2) 都心地 佛寺는 集中式의 高層의 現代式建築도 無妨하되 可及的 包作 等의 韓式 外觀을 바람직하게 보고 있다.

(3) 僧房建築은 山地라 할지라도 建物内部는 暖房·電氣 等의 施設이 잘 되어 있음을 願하되 都心地에 있어서는 아파트도 無關할 것으로 보는 의견도 과반수 있다. 그러나, 大体로 立式生活를 願하지 않으며 便所는 水洗式이라 할지라도 다소 떨어져 있음을 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以上是 現時點에서 改善 可能性의 限界를 論한 것이며 장래 時代가 經過됨에 따라 加一層 佛寺建築은 現代化될 것을 筆者는 確信하는 바이다.

延世大學校 産業學院院長